

제 60 호

서기 1998년(단기4329년)3월27일(금요일)발행
서기 1991년 9월 26일 창간
구독신청 전화:(02)244-3717
기사 및 원고전송 팩스:(02)243-1073



發行人: 金相勳
編輯人: 金命會
印刷人: 宋載勳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 特別市 東大門區 微慶1洞 112-49
우편번호: 130-091
전화: (02)244-3717. fax: (02)243-1073.
대체계좌: 010983-31-0513119

大宗會 顧問 및 運營委員 新年 賀禮會

지난 1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충무로에 소재한 大林亭에서 회장님을 비롯 50여 명이 참석하여 신년하례를 가졌다. 式順에 따라 개회사에 이어 종친 소개를 마치고 相見賀禮를 나누고, 다음으로 회장단이 宗員들에게 큰 절을 하며 인사를 드렸다.

이어서 會長人事에서 相勳會長은 97年度는 대종회에서 별로 한 일이 없음을 말하고 새해에는 일을 찾아 무엇인가 일을 해 보려함을 밝히고 宗親들의 뜻있는 참여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격려사에는 전회장이었던 明會顧問께서 우리 안동김씨대종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신년하례라는 뜻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상훈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 宗親들이 정성어린 마음으로 宗事に 참여하고 대종회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발전이 거듭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격려사를 해 주었다.

다음으로 대종회 연혁 및 중요 회무보고에서 연혁과 사업보고 및 회관 임대 현황, 부동산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지난해 11월 15일 醴泉 勿溪書堂 계에 참석하고 온 두회 부회장께서 다녀온 경과 보고를 하였다. 또한 신년도 사업으로 회원명부 발간 계획과 충렬공 전기 발간 계획을 보고하였다.

다음은 자유 토론 시간으로 차려놓은 茶果와 乾杯酒를 높이 들어 대종회의 무궁한 발전과 종친들의 건승을 祈願하는 건배를 제청하고 우애어린 담소를 나누고 9시에 산회하였다. 이날 경비 140만 원은 회장님께서 부담하였다.



會長團 會議 開催

지난 3월 14일 오전 11시 大宗會館에서 돌아오는 總會와 98年度 事業關係를 協議키 위하여 회장단 회의를 회장님의 주재하에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의안을 協議하여 理事會議에 회부키로 하였다.

1. '97 會計決算中間報告를 총무가 설명하고 98年度 사업 개요, 첫째 회관 옥상 보수와, 둘째 위선 사업으로는 檜谷洞 忠烈公 遺墟碑閣 단청공사를, 셋째, 문고사업으로는 대종회 회원명

부(花樹錄)를 발간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화수록 발간 계획에 대하여는 斗會부회장이 편집방법과 제작비의 釀出方法 및 所要경비를 건적에 의거 설명하여 위 안건을 모두 만장 일치로 결의하고, 다음으로는 총회준비를 협의한 바 정기총회 개최 공고안을 결의하여 공고키로 하였다.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당면사항을 협의하고 오후 2시에 해산 하였다.



定期總會 開催 公告

一九九八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코자 하오니 隣近 宗親과 相互 連絡하시어 많이 參席하심을 要望합니다.

다 음

日時.. 一九九八年 五月二日 土曜日

午前十一時

場所.. 龍山世界日報社內

(電話 七九〇—四四三四)

交通便別表 參照

會議案件

- 一. 定款一部改定
- 二. 一九九七年度 決算報告
- 三. 一九九八年度 豫算案 審議
- 四. 事業(花樹錄發刊)承認
- 五. 其他事項

會費.. 貳萬五千元(通常會費 貳萬圓)

總會費 五千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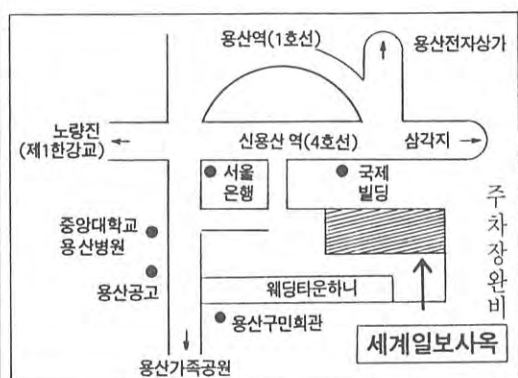
當日 晝食提供 및 記念品 贈呈

一九九八年 四月二日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相勳 白

교통 안내

전 철: 1호선 용산역 하차(보도 7분 거리): 200m
4호선 신용산역 하차(보도 5분 거리): 300m
4호선 이촌역 하차(보도 5분 거리): 200m
일반버스: 25,26,26-2,26-3,38,55-2, 62,76,76-1,84,85,89,95,128,142,143,150, 81-1.
좌석버스: 25,28,50,52,84,85-2,89,150, 725,755,797.



통상회비 납입자 명단

(‘98.1.1~3.23)
翼元公派: 수남, 석배, 용득, 수근, 대
동, 명일, 수희, 장덕, 재화, 태위, 재용.
按廉使公派: 장경, 태동, 문화, 선진,
병만, 주희, 태남, 우식
密直司使公派: 용화, 영웅.
提學公派: 용환, 성희, 덕용, 상몽.
都評議公派: 영목, 회대, 태석, 재욱.
文溫公派: 상복, 정희, 태옥, 재희
正義公派: 중희.
副使公派: 재호, 내균, 재철, 根鎬.
典書公派: 상목, 재욱, 경희, 재현, 봉
목.
派未詳: 종년, 경종, 준웅, 재선, 용세,
찬형, 낙희, 중식, 창희, 대희, 재관,
원주지역 종친회.
計 1,305,000원

고문단 회의시 찬조

壹百五十萬圓: 회장 相勳
壹十萬圓: 思興(按), 부회장 容學.
五萬圓: 道演(按), 振台(翼).
計 1,800,000원

贊助者 名單

(‘98.1.1~3.23)

十萬圓: 태두(按).
五萬圓: 연태(翼), 윤식(按), 준용
(郡), 시묵(密).
四萬圓: 대식(副), 영수
三萬圓: 수원(翼), 명희, 회수, 재청
(典), 재방(翼), 원덕(按) 재곤, 규태,
창성(翼), 안식, 태근, 상온(提).
計 740,000원

중기제작 협찬금

一百萬圓: 삼부해운주식회사 회장 泰
麟(按)
五萬圓: 書雲觀正公派宗會
計 1,050,000원

평생회비

二十萬圓: 會長 相勳(提)
計 200,000원

협조해 주신 종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平生會費 納付案内

一人當 20萬圓 以上

本會報가 創刊된 지 어언 15 個年
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애독하여 주신
종친 제위의 성원과 격려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本會報는 宗親들간의
우호증진과 송조정신의 양양을 목적
으로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비는 宗親들이 내주시
는 통상회비 년2 만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6월부터는 평생회비제
를 만들어 1인당 20 만원 이상을 납
부하면 자기 평생동안 회비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宗親들의 참여를 기대
합니다.

宗報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종친들
의 喜怒哀樂의 소식을 담아 알람으로
써 종치들간의 거리를 좁혀 주는 가
교역할을 하며, 祖上님들의 자취를
발굴하여 밝히므로서 우리 조상들의
일을 바로 알고 본받음으로써 崇祖精
神을 복돋아 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아 가계에 어려움
이 더하겠지만 後孫들을 위한 사업임
을 인식하시고 誠意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옛 성현의 말씀 중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아홉가지 덕목’
을 발견하고 고전의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첫째, 관이율(寬而栗)로서, 사람은
너그러우면서 위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너그러움을 관용(寬容)이라 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은 나도 상대방처럼 잘못을 저질러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관용은
무조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야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만 관
용에 따른 위엄도 유지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둘째, 유이립(柔而立)으로서, 부드
러우면서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인 관계에서 항상 표정은 부드러우
면서도 의지는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무슨 일에서는 의지가 약하며 하
고자 하는 일에 소극적이기 쉽기 때
문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의욕적인 면
이 두드러짐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원이공(愿而恭)으로서, 성실

하면서도 공손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실은 모든 사람의 실천 덕목이기도
하지만 공직자에게 있어서는 기본 덕
목이 아닐 수 없다.

성실하다는 말은 모든 일에 정성스
럽고 참됨을 의미한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
는 말은 모든 일에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되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손함은 성
실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바늘과 실의 관계’라할 수 있다.

넷째, 난이경(亂而敬)으로서, 다스
리면서도 공경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직자가 국민을 다스릴 때, 국민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국민이
따르고 공직자도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논어의 ‘도지이정(道之
以政)하고, 제지이형(齊之以刑)이면,
민면이무치(民免而無恥)하고, 도지이
덕(道之利德)하고, 제지이례(齊之以
禮)면, 유치차격(有恥且格)이니라’라
고 하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이는 곧 정치적 제도와 법률로 백
성을 인도하고 형벌로 바로 잡으면,

奈堤文化 易學者

玉泉先生の 生涯

1. 玉泉先生の 生涯

堤川郡 松鶴面 柴谷里 松鶴山麓의
커다란 바위에 「玉泉洞」이라 새겨
져 있으니 이는 朝鮮末期에 名利를
떠나 오로지 朱程 道學에 힘써 萬人의
推仰을 받았던 玉泉(金龜浩)先生の
自號를 따서 親筆로 陰刻한 것이고,
이 고을 이름을 지금도 玉泉洞이라
부르고 있다.

玉泉先生은 諱는 龜浩요 字는 箕瑞,
號는 玉泉이다. 本貫은 安東, 金時晦의
10代孫이며 金得宗의 八代孫으로 父
는 夏年, 1837년 丁酉(憲宗 3) 2월 5일
堤川市 頭鶴洞 歌唱山 아래 장치미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유년 시절에는
부친으로부터 수학하였고 소년 시절
에는 柳定齋致明(嘉善大夫 哲宗 때 戶
曹參判을 지냄)을 찾아서 師事하여
이미 30여 세에 道學 文章이 卓越하여
모든 사람들의 큰 스승으로 칭호를
받았었다. 그 후 제친군 송학면 시곡리
송학산 밑에 移居하여 自號를 따서
玉泉洞이라 이름짓고 많은 후학 계도
에 전념하였다. 특히 光山金氏의 集
姓村인 이 마을에는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여 進士와 承旨 벼슬을 한 사
람도 있었으니(進士: 金永浩·金龍
洙, 承旨: 金弼鉉) 그 수제자들은 선
생이 서거한 후 기일에는 恩師崇慕의
禮로서 꼭 參祠하였다고 한다.

高宗 때 兵曹判書 심상훈으로부터
出仕할 것을 薦學 받았지만 固辭하고
오로지 後學養成에만 沒頭할 뿐 아니
라 한편, 易學을 통하여 陰陽의 理致에
통달하였고, 演算法 研究로 수리에
밝고 앞날을 예언하는 통찰력이 풍부
하였다 한다.

2. 玉泉詩話 四律六首

登孤山亭會遊韻

槐安亭子號孤山
亭在靑山流水間
太守風流今托契
尚書栖息若承顏
騷人會合茲有勝
浮世光陰是日閑
況復流鶯能白囀
大堤筵屐却忘還

괴산의 정자를 고산이라 부르고
정자는 청산유수 사이에 있도다
군수의 풍류는 지금 詩契를 결탁하였
고

선생은 또한 남달리 救恤의 정신이
강하여 丹陽 永春의 시골에 사는 趙
氏집안(조종승, 조종호 一門)에 孝子
가 있음을 듣고 친히 探問 確認後 儒
林에 薦學하여 孝子發闡으로 表彰을
받게 하여 주었고 또, 어느 해인가
慶尚道の 흉년으로 尹某라는 부부가
걸식으로 이 마을을 지나던 중 堂집
에서 怪疾로 신음하는 것을 보고 손수
음식을 장만하여 구완하였으나 효험
이 없음으로 선생이 거처하는 사랑으
로 데려가서 施藥으로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들은 恩人의 곁을 떠날 수
없다하여 근방인 송학면 무도리 서무
니 마을에 정착하였고, 지금도 그 후
손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先生이 1903년 癸卯(高宗 40) 1월
4일 享年 67歲로 逝去하니 각 지방에
서 많은 조문객이 참석하였고 특히
영호남 유림들도 다수 조문을 왔었다.
선생의 명정을 어떻게 쓰느냐로 논의
하다가 제친 유림들은 ‘선생’으로 하
자 하였으나 영호남 유림측에서는
‘處士’로 함이 옳다하여 끝내 「玉泉
處士」로 결정하였다 한다.

安東金氏 大同譜에는 先生에게 「公
深於性理學 高宗朝彼徵不任 嶺湖士林
章甫追尊玉泉處士 嘗受業于柳定齋致
明」이라 記錄하였다.

玉泉先生의 詩文이 수없이 많았지
만 火難으로 燒失되어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다만 선생의 선대 고향인
槐山을 尋訪하였을 때 詩會에서 지은
詩文(괴산 金相馨氏가 保管中 옥천선
생 증손 奎喆에게 傳한것)을 入手하
였기 이에 소개하고자 한다.

유판서의 별장은 承顏한 것 같도다.

글하는 사람의 회합은 이 노는 것이
성사요
뜬 세상의 광음은 이 날이 한가하도
다

하물며 피꼬리가 능히 백번을 우니
제친의 공극이 문득 돌아가는 것을
잊었노라.

〈註〉承顏: 남의 안색을 살펴 비위
를 맞추
筵屐: 지팡이와 나막신

향전원예

代表 金在均

783-3166. 783-3167. 780-8477

FAX: 780-8478

자택: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1·2호)

3면에 계속

大宗會 宗旗奉安

지난 해 陰8월 16日 忠烈公할아버님 祭祀날 회장님과 명예회장이신 泰亨會長님을 비롯 대중회 회장단, 또 다수의 임원들이 祭祀에 參詣하여 엄숙히 제사를 봉행하고 음복을 하면서 宗旗製作 이야기를 나누었다. 종기는 과거에 공묘해 놓은 도안을 심의하여 現 제작된 圖案을 만장일치로 정하였다. 1997년 12월 5일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당면한 종사를 의논하고 宗旗 제작도 결의하여 宗旗와 弔旗, 또 幟지를 제작하였다. 宗旗의 奉安式은 돌아오는 총회에서 갖도록 했다. 幟지는 종친들의 상징이므로 각 종친 전원이 구입하길 바라며 파종회나 지역종친회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단체로 주문해 주길 바라며 가격은 個當 2,000원이다. 宗旗와 幟지의 模型은 다음과 같다. 宗旗: 바탕은 진관색, 도안과 글씨, 수술은 황금색. 幟지: 원형으로 색상은 황금색, 도안 내용은 安金이고 안의 원 세 개는 금관을 표방한 것임. 宗旗圖案者 프로필은 4면에 記載

宗旗製作費 協贊

三富海運株式會社 會長인 按廉使公 21代孫 泰麟宗親께서는 이번에 製作 奉安케된 우리 安東金門의 象徵인 宗旗製作에 써 달라고 金一封을 協贊해 주었다. 또한 書雲觀正公派에서도 協贊해 주신데 대하여 本部 任員과 執行部에서는 온 종친들을 대신하여 감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면에서 계속

여섯째, 직이온(直而溫)으로서, 곧 으면서도 온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심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되도록 온순하고 상냥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온화함이 없이 곧기만 하면 표적의 대상이 되기 쉽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듯이 곧기만 하면 동지가 적고 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은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일곱째, 간이렴(簡而廉)으로서, 간단하게 처리하면서도 세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상 대화에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므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효율적인 대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알맹이도 없는 장광설(長廣舌)은 설득력도 상실할뿐더러 대화를 그르치기 쉽다는 말이다. 여덟째, 강이색(剛而塞)으로서, 강하면서도 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착실하지 못하면서 매사에 강직(剛直)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니까 강직한 것 이상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착실함이 뒤따라야 한다. 그럴 때 명실공히 선비정신이 나타나게 된다. 우

리의 선비들은 매사에 강직하면서도 모든 일에 허술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홉째, 강이의(疆而義)로서, 굳세고 빠르면서도 올바르고 의롭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우선 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올바르고 의롭게 처리하는 것이 공명정대한 공직자의 상이기도 하다. 을곡(栗谷) 이이(李珥)선생은 “먼저 그 뜻을 크게 하여 성인(聖人)으로서 목표를 삼고, 조금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하면 나의 일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만인의 추앙을 받는 성인이 저절로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흔히 요즘 세상을 “세계화”나 “국제화”니 한다. 세계화나 국제화는 곧 무한 경쟁시대의 돌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 우선 의식부터 바꾸어야만 한다. 더 이상 ‘남과 같이’해서는 그들을 앞지를 수 없다. ‘남과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창의성(創意性)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탐구하고 연구하는 주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좋은 토양에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말이다.

龍仁宗親會 98年度 定期總會盛了

지난 2월 21일 토요일 11시에 용인시 원삼면에 있는 우리식당에서 80여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정기총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회의 내용은 임원 개선과 98년도 사업계획을 심의결의 했는데 임원 개선에는 현 임원을 전원 유임하였으며, 사업계획에는, 1. 安東寶物製作(三段白磁)인데 여기에는 안동정신과 안동상징, 안동표상, 안동존영을 담아 제작하기로 하였으며, 2. 안동 3대 예법(祭禮, 婚禮, 喪禮)을 발간하기로 하였으며, 3. 교육사업으로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槐山 陵村 忠武公 時敏將軍 사당에서 2박3일 계획으로 혁혁한 가문내력 소개와 김시민 장군의 일대기, 중

시조 충렬공의 조국관을 총무이신 爽卿교장 선생이 강의를 하기로 하고, 4. 7월 25일 부터 1박 2일로 선조 묘소를 참배할 계획 등 다채로운 사업계획을 채택 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용인 종친회 발전에 공로가 큰 전총무 영희 종친에게 백자로 공로패를 제작하여 수여하였으며 익원공파인 甲會현종에게는 부모와 장모 장인을 극진히 봉양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효자패를 전달했다. 이와 같이 의안을 마치고 오후에는 여흥의 시간으로 점心和 주안을 들며 용인 종친회의 번영과 결속을 재 다짐하는 행사로 끝을 맺고 해산하였다. 유임된 임원은 회장 壽鎔, 부회장 겸 총무 爽卿 등이다.

祝 榮轉

익원공 22대손 光植賢宗이 금반 3월 13일자 인사에 경북경찰청장에서 서울시 경찰청장으로 승진 영전 하였으므로 우리 문중의 큰 영광이옵기에 祝賀를 드립니다.



光植賢宗 희연宗親

祝 首席 희연 종친

희연양은 익원공 22대손 문정공 휘碩의 18대손인 洙格宗親의 딸로 1979년 12월 31일에 출생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 개봉중학과 금옥여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98학년도 대학

선발고사에서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수석으로 합격하여 문중의 영광이옵기에 여기에 소개한다.

98年度 崇惠殿 陵大祭 日程表

98年度 崇惠殿 및 陵大祭 日程表를 다음과 같이 公告하오니 參考하시어 參詣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殿 陵 名	節 候	陽 曆	陰 曆	擔當參奉	時 間
崇 惠 殿	春 分	3月 21日	2月 23日	金 丙 完	11時
鷄 林 世 廟	3月 初丁	3月 31日	3月 4日	"	10時
味 鄒 王 陵	秋 分	9月 23日	8月 3日	金 圭 榮	10時
奈 勿 王 陵	"	"	"	金 知 坤	11時20分
善 德 女 王 陵	"	"	"	金 丙 完	13時30分
太宗武烈王陵	"	"	"	金 範 來	15時
法 興 王 陵	陰 3月 24日	4月 20日	3月 24日	金 龍 述	11時
眞 平 王 陵	3月 初丁	3月 31日	3月 4日	金 熙 睦	12時
文 武 王 陵	立 夏	5月 6日	4月 11日	金 塔 洙	11時
景 德 王 陵	穀 雨	4月 20日	3月 24日	金 基 煥	11時
元 聖 王 陵	陽 4月 30日	4月 30日	4月 5日	金 秉 溶	11時
興 德 王 陵	3月 中丁	4月 10日	3月 14日	金 道 俊	11時
神 武 王 陵	3月 初丁	3月 31日	3月 4日	金 萬 洙	13時
敬 順 王 陵	陽 10月 3日	10月 3日	8月 13日	大宗親會	12時
崇 恩 殿	陰 4月 4日	4月 29日	4月 4日	金 東 秀	11時
崇 安 殿	陰 9月 9日	10月 28日	9月 9日	金 峻 宇	11時
溟州郡王祭	陰 4月 20日	5月 15日	4月 20日	江陵金氏	10時
巡 廻 茶 禮	擇 日	5月 10日	4月 15日	8時30分出發	

韓國 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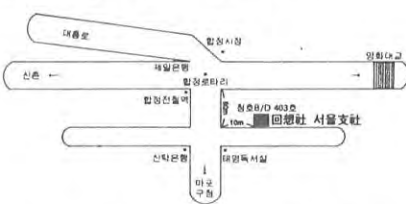
本社 社屋 全景

族譜 出版의 元祖

回想社 五大特徵
1. 創立 40 週年の 歴史の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 組版으로 正確迅速한 電算化로 出版界에 一大革新
3. 編輯, 整書, 出版, 印刷, 製冊을 모든 過程을 同一場所에서 行한것은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4. 原稿에 誤謬가 있을時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 餘年間 勤続한 技能者 多數確保
5. 1,000 餘坪以上에 達한 倉庫의 無料提供으로 1年以上 頻頻 便宜提供

回想社 서울支社 開設

서울地域에서 族譜編纂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開設하였읍니다. 各門中の 收單, 整書, 編輯, 組版,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져 하오니 많은 聲援과 移用있으시기 바랍니다.



族譜古書 出版製冊 回想社
本社: 大田直轄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 253-9881 ~ 3, 256-1263
FAX (042) 253-9891 宅電 253-9892
서울支社: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4-3 청호빌딩 403호
電話 (02) 336-6783 FAX (02) 338-9875

명륜가(明倫歌)

명륜가는 于堂 徐載克 先生作으로 日帝時에 우리 민족운리의 忘却과 역사정신을 잃어감을 탄식하여 이를 고취시켜 민족정신을 일깨워 전통운리를 고수하고 自存의식을 살리기 위하여 펴낸 책으로 일제 때 많이 읽혔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 근래 이 책이 있으면 하던차에 유교신문사에서 이 책을 연재하고 있어 우리도 종보에 연재하여 後孫들께 寶鑑이 되길 바라며 여기 명륜가를 몇 회에 나누어 연재코자 한다.

오륜삼강(五倫三綱) 총론가(總論歌)

태극 조판(肇判) 하온 후에
천지만물 생겨나니
음양오행 팔괘(八卦) 중에
생생(生生)이치 무궁하다
그 가운데 귀한 것이
사람밖에 또 있는가
무엇으로 귀하던고
오륜(五倫) 삼강(三綱) 있음이라
오륜의 도(道) 무엇이며
삼강의 의(義) 무엇인가
부자유친(父子有親) 으뜸이요
군신유의(君臣有義) 다음이라
안에 들면 부부유별(夫婦有別)
밖에 나면 봉우유신(朋友有信)
형제간에 우애하면
장유유서(長幼有序) 아느니라
다섯가지 정(定)한 것이
오륜의 도(道) 분명하다.
부위자강(父爲子綱) 하나이오
군위신강(君爲臣綱) 둘째로다.
부위부강(夫爲婦綱) 삼강이니
인도(人道) 상의 정의로다.
오륜삼강 중한 뜻이
옛 성현의 교육이라
조목조목 말씀하여
모를 것이 없건마는
세강속말(世降俗末) 오늘날에
오륜의 도 배척하니
남은 것은 이곳이요
하는 일은 금수(禽獸)로다.
개방시대 빙자하고
허위(虛僞) 문명 자랑하며
인도(人道) 상에 불급(不及)한 일

무소불위(無所不爲) 행동하니
신성할사 사람으로
어찌 차마 이리할까
회개하고 회개하세
우리 인생 회개하여
오륜 삼강 좋은 목적
문화 문명 다시 하세
오륜 삼강 모르며는
금수엔들 비할손가
동방예의 민족으로
어찌 차마 금수될까
찾아오세 찾아오세
옛날 이름 찾아오세

제1장 부자유친(父子有親)

어와 우리 인생들아
부자유친 들어보소
천지간에 중한 사람
부모밖에 또 있는가
부모 은혜 생각하면
태산 고봉 가벼웁고
장강(長江) 대해(大海) 얕도다
아버님은 하늘이요
어머님은 땅이로다.
천지이치 조화중에
이내몸이 생겨날제
아버님께 정기 받고
어머님께 피를 모아
부정모혈(父精母血) 합하여서
태중십삭(胎中十朔) 고생하여
낳으시니 내몸이라
목욕감겨 누이시고

금옥(金玉)같이 사랑하니
한번 울면 염려하사
어루만져 사랑하며
배고플까 근심하고
몸이 찰까 겁을 내어
진자리에 부모 놓고
마른 자리 아이 누여
춘하추동 때를 따라
한서온량(寒暑溫涼) 살피시니
하루 한때 아니어든
허다 세월 어렵도다
한살 두살 기르실제
단잠 단밥 때를 잃고
녹는 것은 마음이요
타는 것은 간장(肝腸)이라
그 가운데 홍진두역(紅疹痘疫)
차례차례 시켜낼제
부모 마음 어떠하랴
가슴속에 불이 난다
신명(神明)께도 빌어보고
의생(醫生)에게 약을 물어
동동일념(懂懂一念) 기쁜 마음
아이에게 매였도다
증세 만약 위증하면
일촌(一寸) 간장 다 녹는다.
관룡낙개(灌漉落蓋) 순히 하면
기쁘기도 한량 없고
허다(許多) 잔병 치러낼제
몇번 감수(減壽) 되었던가
잠시 무병 충실하여
엄마 아빠 말 배우며
우쭈우쭈 섬마하니
온갖 재물 새록새록
부모 마음 신기하다
지난 고생 춘몽(春夢) 같고
기쁜 마음 새롭도다
일편단심 박힌 마음
무병장수 축원(祝願)이라
이러하게 보낸 세월
어느덧이 세살이라
좋은 음식 좋은 의복
부모 구체(口體) 불구하고
먹이느니 자식이요
입히느니 자식이라
세시복랍(歲時伏臘) 명절때에
더욱 곱게 입히시며
때를 찾고 질기 찾아
구석구석 먹이시고

알뜰하게 거두시니
부모님의 깊은 은혜
하루 반시 범연할까
한해 두해 더 지나서
5, 6세가 넘어가니
부모 자정(慈情) 더욱 깊어
잠들기전 못잊힌다

(다음호에 계속)

宗親 紹介



여기 소개하는 영란 종친은 安養文 英公 宗會 會長을 歷任하신 提學公 19代孫 相沃賢宗의 셋째 따님이다. 고향인 천안 병천에서 출생 병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우내 중학교를 거쳐 천안 여자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1981년 3월 홍익공업전문대학 도안과에 입학하여 재학중 마침 아버지께서 대종회에서 宗旗圖案 모집을 하고 있다시며 기왕 도안과를 택했으니 내가 좋은 도안을 고안해 보라는 권유를 받아 정성껏 도안을 작성 제출하였으나 그 동안 종기 결정을 미루어 왔던터로 이제껏 접어 두고 있다가 지난 해 12월 회장단 회의에서 도안을 審議 決議하여 宗旗로 奉安케 되었다.
이에 이 도안을 내준 장한 영란 종친을 찬양하며 소개를 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종합광고 대행사 동성기획에 근무 중임으로 필요하신 종친들은 직장으로 연락하여 상담하길 바란다. 연락전화는 (02) 3775-0832.



都評議公 宗婦 金在教氏

「중부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시어머님이 병환중인 채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곧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가르침도 받을 시간이 없었지요.」 가훈이나 집안의 풍습을 익힐 사이도 없이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막막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이 집에 와서 가장 많이 신경이 쓰였던 것은 종손이 7대 외동인 만큼 손이 귀하다는 것이었다.

「처음 시집오니까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종가의 방 수만큼 아이를 낳자고 합니다.」 다행히 방이 10칸이 넘지않았다며 웃는 중부는 첫아들을 볼 때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고 기억한다. 이어서 또 아들을 낳아 2남 1녀로 7대 독자의 한을 풀었다.

손이 귀한 만큼 선대 중부 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임신한 몸으로 친정 청송에 갔다 집으로 오던 뒤탈대 중부는 길에서 남편 사망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말에서 떨어져 조산했다. 이 때 임신 8개월.

이렇게 해서 팔삭동이 종손이 태어나자 손이 귀한 집안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숨에 싸서 극진히 보살폈다고 해서 이 할아버지를 지금도 숭배라 불리워지고 지극 정성으로 보살핀 이 할머니도 대단한 분으로 받들여지고 있을 정도다.

김씨의 시어머니인 20대 중부인 李 姪腹(韓山 李氏)은 문중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아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됐다. 18살에 시집을 와서 24살에 혼자 됐으나 종손을 방에 누어두고 나무하러 다니라, 길쌈하라, 모진 힘겨움 속에서도 문중의 일을 정성으로 모셨고, 종손을 잘 키우는 데 온힘을 쏟았다.

「대학을 다닐 때도 어머니는 저에게 늘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매사에 빈틈이 없으시고 엄하셨기 때문에 동네 분이 아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손인 熙允씨(45.友成학원 이사)는 지손이나 이웃들에게는 한없이 너그

러운 분이셨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는 엄격했다고 한다.

「세뱃돈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말씀도 드리지 않고 노트를 샀습니다. 그걸 아시고 어른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며 책가방을 불사르셨을 정도였지요.」

종손의 갈길을 말씀하실 때는 종손은 큰귀를 가지되 한 귀로만 듣지 말고 두 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모두 들은 후 나중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당부였다고 회고한다.

이것이 곧 중부의 마음가짐이 아니겠느냐는 종손 김씨는 고생만 하시다가 52세에 돌아가셨다며 말끝을 흐린다.

「종손 부부는 제사 때면 반드시 고향에 오고 집안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꼭 종가에서 고향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 물론 아이들 둘도 예외가 아니었다.

첫아들 돌잔치도 고향에서 했습니다. 즐거운 잔칫날 우리 부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손이 귀한 것이 늘 한이 됐던 시어머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뿐이었지요.」

「慎言行, 勤讀書, 務農商」 이것이 이 집안의 가훈이다. 여기에 10항목의 警心箴이 후손에게 전해지고 있다.

첫째가 어버이 섬기는 일이고, 둘째가 나라에 충성할 일, 셋째가 제사를 받드는 일이고, 집을 바로 다스리는 일, 형제 남매 화목할 일, 형벌을 삼가할 일, 남을 헐뜯지 말 일, 여색을 삼가하는 일, 친구를 잘 사귀는 일, 가난하면서도 분수를 지키는 일 등이 다.

이 중 집을 바르게 다스리는 「正家」 편에 나오는 「부인네의 잘못은 가난을 원망하고 과분한 허식에서 나온다.」는 말은 중부는 명심하고 있다.

이런 선조의 말씀이 있기에 처녀가 쌀 3말을 먹고 시집가면 잘간다고 할 만큼 어려웠던 이 동네에서 모두들 가난을 원망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연유인 듯하다.

「음력 3월 이 동네의 모든 아녀자들이 모여 화전놀이를 할 때는 중부는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합니다. 바늘 방석이지만 저를 생각해 주는 친척분들의 마음이 느껴져 집안을 위해서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지요.」 자식들 모두 키우면 이 곳에서 집안을 위해 무엇든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종손부부는 의병난에 불타거나 6·25때 없어진 조상의 유물을 복원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